

김미경의 리부트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오후 1:29

김미경, 웅진지식하우스 _ 아차산 도서관

✓ 작가님이 추천한 책

-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 미래를 현실로 관련책:
 - 대변동 (제레드 다이아몬드), 팩트물니스(한스 로슬링), _ 위기를 대하는 다양한 방법론
 - 초예측, 미래의 단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하라리)
 - 뉴로맨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나 그 회사의 CEO를 다룬 책들도 읽으면 좋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머스크 등의 생생한 비즈니스 스토리를 읽어 보면 그들이 어떤 성공과 실패를 겪었는지, 어떻게 남보다 한발 앞서 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변화의 정보를 읽는 습관을 적어도 세개이상 가질 것

☐ 나는 영어공부, 독서,글쓰기 -> 여기에 신문보기, 경제에 관심 가지기 추가 해야 할 듯

✓ 어휘.단어, 따라할 문장 등

- 코로나블루
- 리부트: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 재부팅하다
-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달라진다
거대한 하나가 추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열린다.

✓ 프롤,에필로그

- 저자는 코로나로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한달동안 각종 신문과 책을 탐독하며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찾기 위해 매일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 자신의 일과 결합하고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건 그저 위기가 아니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잘되는 기업이 있었다. 새로운 조짐과 현상들로 온 세상이 분주하다. 작지만 분명한 신호들을 취합하고 나자 숨어 있던 질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 1장. 모든 혼돈속에는 질서가 숨어있다.
- 2장.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공식
- 3장.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는 구체적인 방법 _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 4장.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뉴러너가 되어야 한다.
- 5장. 뉴 휴먼이 가져야 할 삶의 물음

✓ 1장.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 코로나는 혼돈이다.

혼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 혼돈은 요동이 아니다.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수 있다, 즉 혼돈은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

- 눈으로 보기에는 소용돌이가 혼돈같이 보이지만,

- ☐ 저자는 코로나의 혼돈속에서 잘되는 기업들과 세상돌아가는 경제 등 신문과 책을 탐독하며 혼돈속에서 질서를 찾으려고 애썼다. 양자 역학도 배웠다. 우주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탐구하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세상에 대한 통찰도 깊어질것 같아서 시작했다고 한다. 아.. 정말 사고가 일반 사람과는 틀린것 같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무언가 꼬여있거나 일이 잘 안풀리거나, 세상의 불황이나 악조건등이 있다면 혼돈속에서 질서를 찾을수 있도록 작가님처럼 노력해봐야겠다. 이런 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겠다. 깊은 통찰력이다.

- 예를 들어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생각해보자. 눈으로 보기에는 소용돌이가 혼돈같이 보이지만, 물 분자구조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자들 사이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으며, 구조적으로 규칙을 지키며 배열된 분자구조를 보인다. 이 대목을 깨달자 그때껏 혼돈이라고 하면 떠올랐던 생각과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혔다. 내 눈에 보기에 무질서하게만 보이는 혼돈 안에 가지런하고 정돈된 질서가 숨어 있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혼돈과 혼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이미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는게 아닐까? 그 역동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볼수 있다면,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나 또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 < 필사 p 35~ 36>

- 판이 바뀌는 세 번째 기회가 온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 질서를 진작 알아내고 그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거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하는 것,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고급정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변화에 관해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게 위기다. 그만큼 가치 있는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위기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지금을 위기라고 확실히 인지했다면, 당신은 이미 고급 정보에 가까이 가 있는 상태다.

- 누구도 나를 위해 수고롭게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발로 뛰면 얼마든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다. 뉴스, 각종 리포트, 유튜브, 책 등 수많은 단서가 널려있다.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켜어 가면서 질서를 파악하고 공식을 만들면 그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고급 정보가 된다. 공부한 만큼 갖게 되는 게 고급 정보다. 지금은 위기를 공부해야 할 때다.
- 못한다가 아니라 안한다라고 말해라. 못한다, 못간다는 내가 피해자인것 같음, 안해요, 안가요 라고 말하기. 상황을 주체적으로 풀어가는 승자의 말을 하자.
못한다를 안한다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중요하다. 피해를 입은 대상에서 피해를 해결해하는 주체로 생각만 바뀌도 우리는 스스로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자존감 있게 선언하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한다 !

✓ 2장.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1.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온택트 시대다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온택트 시대**
사람들과 달라진 세상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내고 이를 내 일에 곧바로 대입해라.**
 2.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해야한다. 모든 온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디지털과 내 사업, 내 일을 합체**시켜 완전히 변신해야 한다.
 3. **인디펜던스 워커**가 되라. independance worker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4. **세이프티 safety**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다.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 이 네가지 공식만 제대로 공부하고 일과 삶에 대입할 수 있다면 멈춰가던 많은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 온택트 기술은 내가 먼저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이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온택트는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 회사 밖에 나오더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먹구름 속에서도 변하기 않는게 있다. 먹고, 자고, 사고, 만나고, 일하는 일상의 기본 요소들이다.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온택트 방법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당장 시작하자.
- ☐ 온택트 필사기를 연구하고 연습하라고? 어떻게???
- ☐ 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챗터 2는 반복해서 읽고 계속 생각해보고 곱씹어 볼 문제다. 변하지 않는 것들,, 먹고 자고 사고 만나고 이런 기본적인 요소에 온택트, 디지털 기술 더해서 내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강점 연결 시켜라...

- (고객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자.
잘 모르고 가공만 잘하면 빅데이터는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실체가 될 수 있다. 고객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수 있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디지털 생산자 마인드를 바꾼다.
- sns, 홈페이지, 앱 등 중요하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다.
- 적어도 지금 내가 하던 일 그대로는 안된다, 특히 기계나 스마트폰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일 자리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 어떤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가장 잘 하는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
- 앞으로 2~3년 안에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나답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것이라고 전문가들 전망. 이런 시스템을 나 스스로 갖추어야 함.
- 세이프티, 당장 눈앞의 이익과 관련 없어도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해라.
앞으로 모든 분야에 붙을 필수 형용사다.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이프티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다.
-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물 자재까지도 세균과 바이러스 서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이 중요해졌다. 세이프티는 고급 브랜드로 통하는 길이다. 세이프티마케팅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할 것

코어 콘텐츠를 가져라

-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있는 것. 재미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키워온 나만의 핵심역량 →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 처음엔 다 어설프다. 5년 이상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남과 비교 자체가 불필요한 자신감의 코어콘텐츠가 된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즐겁게 집중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일치되어야 인디펜던트 워커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 그리고 내가 하면 남과 다르다라는 걸 믿어라
- 인디펜던트워커는 앞으로 직업의 미래가 될 것이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합당한 일을 하길 원하라.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해야한다.
- 파워포인트. 문서작업, 동영상 작업, 블로그 작업, 네이버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등

- 새로운 플랫폼 등장하때 마다 즉시 배워서 적용하고, 장소불문 나라불문 일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셀프업그레이드 시스템 만들어라

- 자신의 일에 투자하고, 공부에 투자하고, 자기계발해라
- 영어공부, 독서, 글쓰기, 과학공부, 취미계발, 디지털 공부
- 내 인생과 커리어에 고스란히 남는다

네트워크 관리해라

- 혼자 일하는게 아니다.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 먹고 살아야 일도 할 수 있다. 자신의 꿈을 서포트 하려면 돈에 관해 영리해져야 한다.
- 일이 끊기지 않게 나와 주변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다.

✓ 3장.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꿈의 방향을 잡으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한다. 2장의 4가지 공식을 세상에 대입한다.

- 기존의 능력을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 채우는 플러스 기법이 아닌, 이미 쓸모없어진 내 능력을 버리고 빈자리를 만들어 채우는 마이너스 기법이 필요하다.
- 내가 가진 기본값이 무엇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볼수 있다.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사람은 무엇을 손에 쥐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
- 끊임없이 바꾸고 조합하고 새로 채워야 내 분야에서 유능해질수 있다.
- 작가님의 기본값은 강사. 직업의 골목만 남기고 그동안의 방식을 바꿔야 새로운 생가고가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 내 직업도 살리고, 내 돈도 살리고, 내 미래도 살릴 수 있다고 . 모든것을 바꿔야 비로소 유능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

✓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 쓰는 법 _실천하기

1. 나와 세상을 분석하라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한 나의 핵심 역량은?

-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보라.
- 나의 핵심 역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달라진 세상에서도 이 역량으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 주인공 없는 무대는 존재할 수 없듯이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는 지금껏 나를 먹여 살려온 기초 실력으로 또다시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많이 적어보라. 사소한 것도 괜찮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나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하는 배짱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강점을 적어보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져라.
-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거나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꼭 적어본다.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생각나는대로, 가능한 한 많은 항목을 적어보는게 중요하다.

내 일과 관련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갈 세상을 분석할 차례다.

- 처음에는 아주 대략적으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는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라. 미래 예측이 시작이다. 거기에 연구 자료등을 더해서 정교하게 다듬으면 우리가 아는 미래 예측 리포트가 된다.
- 내가 몸담은 분야의 변화를 내 입맛에 맞게 콕 집어 찾아낼 사람은 나 밖에 없다. 같은 자료라도 누군가에게는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다시없을 귀한 정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큐레이션된 정보 말고, 내가 직접 찾아낸 정보에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 조사 단계에서 신문, 책, 리포트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나를 둘러싼 변화를 파악한다.
- 많이 해본 사람이 고급 정보를 더 잘 찾는다. 처음엔 허술해도 많이 해본 사람이 고급 정보를 더 잘 찾게 되고, 계속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분야 트렌드를 잘 알게 된다.
- 이렇게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다보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다. **작대기 긁기다, 짝을 지어 서로 연결을 시키다보면 목록들이 저절로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 저 디지털 기술을 배워서 이런 마케팅을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수 있겠네
- 앞으로 저 분야가 새로 뜬다는데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면 확실히 경쟁력이 생기겠는 걸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 목록을 다 적고도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 분석이 덜 끝난 것이다. 자료조사를 더 한다. 내가 놓친 핵심 역량은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하고, 최신 뉴스를 매일 검색하면서 변화의 흐름을 잡아가다 보면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네가지 목록도 짝 채워질 것이다.

2. 리부트 공식에 대입해 10줄 시놉시스를 써라

☐ 작가님은 인스타그램에 써다고 하니 검색해보기

- 달라진 세상에서도 종이책은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일에 큰 보람을 얻기 위해 양질의 책을 더 넓은 세상의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를 필두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의 대영레 케이북도 나란히 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나는 **외국어 능력**
과 디지털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야겠다. (작가님글)

-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디어는 불현듯 섬광처럼 번쩍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다. 모든 아이디어는 낯선 것을 봤거나, 내가 지금껏 관심 없던 것들과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낯선 것과의 충돌은 기존의 생각에 균열을 만들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생각이 탄생한다.

10줄의 시놉시스를 쓰고 나서 4가지 리부트 공식 : 온택트, 디지털, 인디펜던트워커, 세이프티를 시놉시스에 대입해본다.

-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아직은 상상에 불과한 시놉시스가 나를 위한 솔루션이 되려면 네 가지 공식에 반드시 대입해 봐야 한다.
- 시놉시스는 한 번쓰면 끝나는 숙제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때마다 기존의 시놉시스를 수정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고칠수 있고 새로 쓸 수도 있고 지울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시놉시스를 쓰면 쓸수록 나의 생각이 정교해지고 나를 위한 솔루션이 풍성해진다.
-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말고 일단 써보는게 중요하다. 머리로 상상하고 공식에 넣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진짜 나를 살리는 시나리오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 일단은 써라

To Do List 만들고 즉시 실행하라

- ex) 영어공부를 위한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천
- 실행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의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여야 한다. 좋은 계획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무용지물이다.
- 혼자보다는 팀을 만들어서 실행하는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대부분 남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혼자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해당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안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배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지금길이다.
- 실패를 통해 계속 수정해라. 운이 맞아 떨어지면 대박이 터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최악의 결과라 할지라도 퇴소한 다음부터는 잘못된 선택을 피해가는 힌트가** 되어준다.
- 리부트 시나리오는 내꿈의 연습장이다. 작가님은 매일 이 연습장을 쓰신다고한다. 시나리오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걸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후 무엇이 변하고 있나?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하나?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의 나는 어떤 형태의 강사로 존재해야 하나? 미래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를 자꾸 그려보는 연습장이다.
- 요즘 같이 힘들때는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지 준비도 없이 무작정 현실에 뛰어들면 안 된다. 미래의 나와 현재 상황을 조합해서 상상해보고 투두리스트를 쓰고, 실행해보고,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해 나가는 단계를 여러번 거쳐야 한다.

✓ 4장.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는 넓게 빨리 알아서 연결되는 융합적 학습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직업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즉시 배워서 즉시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생존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뉴 러너인가? 뉴 러너가 될 준비는 되어 있는가?
- 코로나 이후로는 속도가 세 배 빨라질 거니까 틈날 때마다 책 읽고 공부해, 지금 흐름을 놓치면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을 못알아 듣게 될꺼야
- 즉시교육
생존과 직결된 공부는 단시간에 끝낸다. 그것이 무엇인지 100퍼센트 이해할수 없어도 적어도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는 반드시 알아내고야 만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융합하지 않으면 당장 일터에서 쓸모없어지고 무용 계급으로 전락한다. 이제 교육은 생존이자 일상이다.
-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방식을 리부트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는 몇 년간 깊이 파고드는 석박사형 공부가 아니다. 넓게 알고 빨리 연결시키는게 중요한 융합형 학습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끼리 서로 융합해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즉시 배워서 즉시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생존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 나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야 한다. 다종다양한 직업 환경에 처함 개인들 각각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공부는 무엇인지, 그 지식과 기술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파악해 자신에 꼭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짜야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찾는다.
-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변곡점들을 만난다. 변곡점의 순간을 하강 곡선이 아닌 상승 곡선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즉시교육이다. 뉴러너가 되어 이 변곡점을 지난다면 어느새 당신은 상승곡선을 타고 있을 것이다.
- 무자본으로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뭘 배워야 할까?
지금 난항으로 겪고 있는 내 사업의 문제를 풀어줄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는다.
- 무료로 공부하고 싶다면 유튜브가 최적의 플랫폼이다. 유튜브에 나만의 공부방을 만들어라.
 - 나중에 볼 동영상을 저장 버튼을 눌러 나의 재생목록으로 보낸다.
 - 재생목록에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수 있다. 폴더 만들기
 - 주의 할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지지 않는 것`
- 코딩이 일반 교양이 될 것이다.
- 나만의 AI 만들기 _ex) 주식투자봇 _ 사용자가 회사에 있는 동안 주식을 사고팔아 자산을 늘려주는 일종의 인공지능.
- 내 업무, 사업을 자동화 하는 나만의 맞춤봇을 수없이 만들어 낼수 있다.

- 디지털 문법을 이해해야 현실적 생계도 이어나갈 수 있고 꿈도 펼칠 수 있다. 파이썬 배우기 (김미경 작가님 MKYU 대학)
- 작가님은 종이 신문을 보면서 솔루션노트를 펼친다. 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메모하는 수첩, 형광펜등. 신문은 1면이 아닌 요피니언 지면부터 본다. 똑같은 세상 정보가 누군가의 머리를 통화했을 때 어떻게 해석 되는지 궁금해서다. 나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읽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엄청 신선한 자극과 영감을 준다.

✓ 5장. 공존의 철학자 뉴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환경, 자연을 위해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

덜 쓰는 습관

- 좀 남기자. 미래의 재앙을 늦추기 위해 할 일은 오직 하나, 덜 쓰는 것 뿐이다.
- 앞으로 기후변화 더 빨라질 것이다.
-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 커피숍에서도 _ 텀블러 휴대
- 봉투대신에 장바구니 사용 _ 장바구니 휴대
- 자연을 자꾸 훼손시키면 당장은 이득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은 더 써줘야 한다. 다음세대를 위한 복리적금이다.
-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나부터 변화하기
- 1인 1톤 탄소줄이기.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자동차를 최소로 타겠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전기를 최소로 쓰겠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쓸 미래 자원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쓰고 더 많이 남겨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 추가된 어른들의 의무다.

위축 될때는 상대를 '절반' 으로 접어라

- 이까지 기술 1년이면 다 배운다. 내가 그동안 살아낸 실력이 얼마대.
- 작가님은 처음 디지털 세상을 접속할때 기가 죽었다. 용어들도 전부 다 영어이고 이런 말들을 일상 용어로 쓰는 이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 보였나. 내가 안가져본 것들에 대해 우리는 쉽게 과대평가하곤 한다. 잘 모르면 일단 그걸 가진 이들이 엄청 잘나 보인다.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올라온다. 그런 마음의 작용이야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오래 붙잡혀 있으면 안된다. 내마음을 계속 쪼그라져 작아지게 두면 안된다.
-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과 내일을 합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용어부터 생소하고 공부할게 많으니 덜컥 겁부터 난다. 작가님은 그럴때 일단 상대를 '확' 접어버린다. 일부러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 그까짓 디지털 기술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배운다. 나는 뭐 바보야> 나보다 몇 년 앞서서 시작했으니 그만큼 잘 아는게 당연하다

상수와 변수를 구분해라

- 그일을 하고 싶은 나는 상수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변수다. 변수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상수와 변수를 헷갈리면 마음을 다치기 쉽다.
-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 어쩔수 없는 외부상황에 집착하지 마라. 상수와 변수를 구분할 줄 알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 지금처럼 모든것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혼돈의 시대에는 상수인 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
- 지금같은 상황에서 나라는 상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변수를 내가 주도적으로 수정하고 바꿔야 한다.
- 최선을 찾기 힘들다면 차선택이라도 찾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를 다잡아야한다, 그래야 달라진 세상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수 있다

상대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로나로 온 사회가 언택트가 되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되고 있다. 많이 느끼는 감정은 고립감과 외로움이다.
-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인간의 조엄과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낼수 있다.
- 지지와 응원
- 나보다 네가 더 힘들지 않냐는 배려의 말 한마디.

✓ 핵심 .키워드

- 키워드
 - 혼돈속에 질서, 온택트, 디지털기술, 플랫폼, 인디펜던트워커,세이프티, 티핑포인트, 핵심코어
 - 변하지 않는 것에 접목시켜라 (먹고, 자고, 사고, 만나고...)
-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달라진다
거대한 하나가 추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열린다.
- 혼돈속에 질서가 있다.
- 도심지역 부동산 상승?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곳이 도심 아파트다. 단지 내에 확진자 나오면 거주민 수백명이 한꺼번에 패닉에 빠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도시 수요 늘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재택 근무 형태도 한 몫하고 있다.

- 작대기 굿기
- 외국어 능력과 디지털 능력
-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과 내일을 합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 느낀점

- 혼돈속에 질서가 있다.
- 공부한 만큼 보이는게 위기다.
- 많으면 달라진다.
- 못한다를 안한다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 중요하다.피해를 입은 대상에서 피해를 해결해하는 주체로 생각만 바뀌도 우리는 스스로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자존감 있게 선언하자.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한다 !
- 리부트 시나리오 나도 꼭 해보자.
- 즉시교육
- 파이썬
영어 (영어는 기본중 기본인것 같고..),
앞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날테니, 건강과 음식, 다이어트 등 이런쪽으로 생각해보기?
유튜브? 지금은 인풋이 너무없다.

▽ 챗봇질문 _ Tipping point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직역하면 ***기울어지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처럼 더 의미 깊게 쓰여요:

1. 정의

작은 변화가 쌓이다가 결국 갑작스러운 큰 변화나 폭발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세상이 "확" 바뀌는 **임계점, 전환점**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2. 쉽게 풀면

컵에 물을 조금씩 계속 붓다가

딱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물이 넘쳐버리죠?

그 한 방울이 **티핑 포인트**예요.

3. 실생활 예시

- **사회현상:** 작은 시위가 갑자기 전국적인 혁명으로 번지는 순간
- **유행/마케팅:** 조용하던 상품이 갑자기 입소문으로 대히트를 치는 순간
- **개인 변화:** 작은 습관을 계속하다가 인생이 눈에 띄게 바뀌는 시점

4. 영어 예문

- *Social media was the tipping point that made the brand go viral.*
(SNS가 그 브랜드를 갑자기 유행시키는 전환점이었어.)
- *Her decision to quit her job was the tipping point in her life.*
(그녀가 퇴사한 결정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5. 관련 도서

말콤 글래드웰의 책 《The Tipping Point》

→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다룬 책이에요.

요약 정리

- **뜻:** 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결정적인 순간'
- **비유:** 마지막 한 방울에 컵이 넘치는 순간
- **예시:** 유행, 혁명, 습관 변화 등에서 자주 등장



챗봇질문 _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할까?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 질거다

채은아, 참 중요한 질문을 했어.

“코로나 이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 말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 그리고 **'위기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 역시, 현실을 꿰뚫는 통찰이야. 이 세상은 조용히 재편되고 있고, 눈 뜨고 보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어.

1. 왜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

① 기회는 '기술'과 '정보'에 집중되고 있어

-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을 폭발적으로 앞당겼어.
- AI, 데이터, 원격 기술, 자동화 등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한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있어.
- 반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어.

② '자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

- 코로나 이후 **자산 가격(집, 주식 등)**은 더 올라갔어.

-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대적 빈곤에 빠지기 쉬워졌지.

③ 복지와 일자리 제도의 빈틈

- 고용은 줄어드는데, 노후 보장도 취약해지고 있어.
- '비정규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는 더 위험에 노출돼 있어.

2. SK,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이런 시대에 초격차 기업들은 더 강해지고 있어.

- SK는 AI,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으로 이미 *****미래산업 지배*****를 준비 중이야.
- 자본, 인재, 기술이 대기업에 쏠리기 때문에 **소수만이 고속성장**하고, 대다수는 뒤쳐지는 구조야.

3. 그럼, 채은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① 모르는 채로 살지 말자

- 위기는 남몰래 다가오고,
- 정보를 가진 사람만 탈출구를 본다.

“공부는 생존이다.”

“정보는 부의 지도다.”

② 시대에 맞는 역량을 쌓자

- 영어, 글쓰기, 금융, 디지털 역량은
지금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야.

③ 무너진 자리에서 나만의 시스템 만들기

- 누구보다 **작고 꾸준한 루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
- “지금, 여기서”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

4. 채이가 채은에게 주는 생존 전략

“혼돈의 시대, ‘기술 + 신앙 + 기록’이 너의 힘이야.”

- 기술: 영어, 디지털, 자기 콘텐츠
- 신앙: 흔들리지 않는 기준
- 기록: 생각과 깨달음을 남기는 무기

5. 한 문장 요약

“위기를 준비하는 자만이, 양극화 속에서 기회로 올라탄다.”

지금 채은이는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한 사람이고,

채이는 끝까지 함께할 거야.

필요하면 “나만의 양극화 생존 전략 노트” 만들어줄게.

채은이의 하루하루를 모아,
기회로 전환시켜보자.

채은아,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고급 정보는 누군가가 수고롭게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뛰고 공부해서 꿰어야 얻을 수 있다. 지금은 특히 ‘위기’를 공부할 때다.”

이 말이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위기를 공부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위기를 공부한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하고 막막할 수 있어.

그래서 아래처럼 구체적인 단계로 다시 정리해줄게:

“위기를 공부하는 법” – 실전 행동 가이드

1.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위기가 왔는지 파악하기

- 예: 코로나 이후 양극화, 노동 시장 변화,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고령화, 부동산 하락 등
- → 지금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문, 유튜브, 정부 리포트로 체크

추천 출처: 통계청, KDI, 한국은행 경제리뷰, 장경철의 경제읽기, 김광석의 경제브리핑, 삼프로TV

2. ‘위기 속 기회’를 파악하려면, 질문을 던져야 해

예를 들어:

-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뭘까?”
- “그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지식이나 서비스는 뭘까?”
- “나는 어떤 기술, 경험,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 “이걸 누구에게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위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연결되는 ‘실전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중요해.**

3. 정보를 꿰고 질서를 만들기

- 뽕뽕이 흩어진 정보는 아무 소용없어.
- 중요한 건 **패턴을 찾고, 반복되는 구조를 발견하는 것.**

예:

“모든 위기는 정보 비대칭에서 기회가 생긴다.”

“양극화는 정보 접근 능력 차이에서 벌어진다.”

→ 그렇다면 나는 정보를 꿰어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식으로 *****나만의 공식*****을 만드는 거야.

4. 공부의 본질은 '질문 - 정보 수집 - 연결 - 요약'이야

- 정보를 모은다고 고급이 되는 게 아니고,
- 그걸 내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정리했을 때 진짜 내 것이 돼.

→ 그래서 블로그 쓰기, 노션 정리, 나만의 요약본 만들기가 고급 정보로 가는 길이야.

핵심 요약

- 위기 = 기회가 숨어 있는 구조를 찾는 작업
- 공부 = 내가 살아남고 쓰임받기 위해 시대를 파악하는 능력
- 정보 = 꿰고 정리해야 내 것이 되고, 써먹을 수 있음
- 행동 = 발로 뛰어 질문하고, 수집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공식을 만든다

필요하다면, 채은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주제(예: 영어, 경제, 자산, 글쓰기, 부업)를 기준으로 위기 분석을 함께 해줄 수 있어.

"위기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고, 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야.

이제, 질문을 시작해볼래?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뭐야?

✓ 챗봇 _ 서은 리부트 시나리오

물론이야, 채은. 아래는 요청하신 대로 **가독성 좋고 정리된 리부트 시나리오 요약본**이야.

- 원본 내용을 개조식 + 서술형으로 정리했고
- 채은의 언어와 상황에 맞춰 각색했어.
- 마지막엔 ****핵심 요약(summary)****을 따로 달아놨어.
- 블로그에 바로 올릴 수 있게 구성했어.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

– 변곡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

1. 쓸모없는 능력부터 버려야 한다 – 마이너스 기법

지금 시대엔 뭘 더 배울지가 아니라,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식과 능력을 과감히 버리는 게 먼저다.

채은인 오랫동안 돌봄의 현장에서 일해왔고,

말과 글로 사람을 위로하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그 '기본값'은 남기되,

낡은 방식과 사고의 틀은 내려놓고 새 판을 짜야 할 때다.

2. 모든 것을 바꿔야 유능한 내가 된다

하던 대로 하면 결국 도태된다.

내가 가진 능력들을 다시 조합하고, 재배열하고, 확장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업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새로운 언어와 기술과 접목되어야 시대에 맞는 가치로 탈바꿈할 수 있다.

3. 공부는 깊게가 아니라 넓게, 빠르게 연결하는 융합형으로

이젠 석박사형 지식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지식이 뭔지 알아보고 바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융합학습이 살아남는다.

유튜브, 온라인 강의, 책들을 통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공부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

예: ChatGPT를 다루는 능력, 자동화 기술, 간단한 파이썬, 금융 문해력 등

4. 즉시교육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속도는 3배로 빨라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의 흐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즉시 배우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이

내 일과 생계를 살린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내 일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중심에 뒀야 한다.

5. 무료 플랫폼도 자산이다 – 나만의 공부방 만들기

채은은 유튜브를 그냥 소비하지 않는다.

‘나만의 공부방’처럼 활용한다.

- 동영상은 저장해서 재생목록에 폴더별로 정리
 -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게 방향성을 미리 설정
 - 나중엔 이 공부방이 내 전자책, 강의, 수익모델이 될 수도 있음
-

6. 디지털 문법과 친해져야 꿈도 생존도 가능하다

이제는 디지털 언어를 못 읽으면

생존도 어렵고, 꿈을 실현할 기회도 막힌다.

채은에게 필요한 건,

- 파이썬으로 자동화 배우기 (MKYU 추천)
 - 나만의 AI 만들기: 예를 들면 조카 학습 도와주는 챗봇, 환자 응대용 영어 패턴 챗봇
 - 작은 일이라도 자동화하고 연결하는 감각
-

7. 나만의 솔루션노트 만들기

신문, 책, 영상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무조건 손으로 기록하고 정리한다.

채은만의 '리부트 노트'를 만들어

- 생각 정리
- 실행 계획
- 실패 피드백
- 방향성 점검

을 계속 업데이트한다.

이것이 진짜 나만의 교과서다.

Summary – 리부트 시나리오 핵심 요약

- 기존 능력부터 과감히 버려야 진짜 빈자리가 생긴다.
- '기본값'을 지키되, 모든 것을 새롭게 조합하라.
- 지식은 깊게가 아닌 넓게, 빠르게 연결해야 한다.
- 즉시교육만이 생존을 보장한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 무료 플랫폼도 공부 자산이다. 방향을 갖고 콘텐츠를 소비하라.
- 디지털 문법을 익혀야 생존도 가능하고 꿈도 확장된다.
- 매일 기록하고 정리하는 '솔루션노트'가 나만의 생존 전략이다.